

지방화 시대의 농업개발전략

- 고냉지역 농촌지도사례 -

이 수 철

봉화군 농촌지도소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in Bong-Wha County

Soo Cheul Lee

BongWha Rural Extension Office

Summary

Under the WTO, Bong-Wha county's agriculture is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and environmental changes. For overcoming this situation, some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in Bong-Wha county.

First, special agricultural products adapt to local condition should be produced. Second, innovation technics should be developed in local agriculture. Third, marketing activities should be improved in local agricultural products. Finally,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development should be activated.

I. 머리말

WTO 체제하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속에 우리의 농업과 농촌에는 많은 변화를 강요하고 또 매우 힘들고 어려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는 동시에 「도전의 기회」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날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간은 물론 지역간에도 무한경쟁을 해야만 하고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고 특산화시켜 나가 총체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변화하지 않는 농업, 기술개발에 뒤진 농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엄한 국제 및 국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봉화농업개발센터를 마련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특화작목을 개발, 확대 보급하는 등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첨단농업기술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리지역의 영농경영상 여건과 농업개발의 실재를 제시하고 금후발전농업을 이룩할 수 있는 전략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농업경영상의 입지여건

우리 군은 태백산 남향에 위치한 전형적인 고냉지로서 총 면적의 83%가 임야이며, 농경지는 12%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지 13천ha중 밭이 70%, 논이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발

400m 이상의 고냉지가 40%를 점하고 있어 밭 이용의 특성화가 가능한 곳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1.5ha로 전국 평균 1.2ha 보다 넓고, 경지정리면적도 가능면적의 34%로서 협소하나 수리안전담의 경우 72%로서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

한편 기온에 있어서는 평균 11℃ 수준으로서 년중 가장 낮은 기온은 영하 25℃, 그리고 가장 높은 기온은 38℃ 수준에 이른다. 강수량은 평균 1,240mm로 대체로 많은 량의 비가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리가 오지 않는 기간이 164일 정도로 대구지방 215일 보다 무려 51일정도 짧고, 처음 서리가 오는 때가 10월 10일경, 그리고 마지막 서리는 5월 5일에 이르고 있어 영농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부분 고랭지지역이 많아서 산지자원의 개발과 고랭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 정착되어가는 봉화농업개발의 실제

지방화, 세계화에 따라 우리 나라의 농업동향중 현저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은 먼저, 농산물 생산중심에서 질 좋은 상품생산 농업으로 급전하고, 들깨, 단순노동 집약형 농업에서 기술 자본집약형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작목의 다양화 및 지역별 특화작목 개발이 가속화되어야 하고, 넷째, 대부분 농민들이 새롭고 다양한 전문기술과 과학적인 시설재배와 전문기술교육을 갈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업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농업 개발과 새로운 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의 긴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지역발전 농업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 추구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봉화농업개발센터의 육성이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시험기능과 농민실증교육 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93년부터 과학실험시설 380평, 시험연구포장 6,000평 등 총 6,380평을 확보 운영하고 있다.

과학시설은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농기계공작실, 경영상담실, 생활과학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여기에서는 농민들의 현장에로사항을 신속하게 진단 분석하여 처방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시험연구포장은 봉성 창평리에 설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리수경재배사,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자동화하우스, 수막하우스, 첨단과학시설 등을 확보하고 채소, 과수시험포와 특화작목시험포로서 약초전시포, 토종대추묘목포, 분재시험포, 산지개발작목시험포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울러 톱밥발효우사, 야생화전시포 등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시험연구포에서 주산작목기술, 경영진단과 조사, 연구 등을 통한 지역 적정 기술보급 촉진과 지역 단위 전략 및 고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고냉지 5대 주산작목의 특산화이다.

우리지역의 5대 특산작목으로는 고랭지 봉화사과, 고랭지 봉화고추, 고랭지 봉화딸기, 고랭지 봉화복수박 그리고 봉화한약우로 결정하여 특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봉화사과」경우 극왜성대목인 M9을 이용한 사과묘목을 대량 자체로 생산하여 2000년까지 전농가에 공급하여 새로운 저수고초밀식과원으로 전면 개체하고자 한다. 또한 사과의 핵심기술로 방상팬 설치, 머리뽑가위별방사, 점적관수, 착색봉지, 반사필름 이용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봉화사과의 명성을 쌓기 위해 예술적인 사과탑, 현판판 등의 설치는 물론 사과품평회, 시식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봉화사과의 우수성을 평가·홍보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

다. 아울러 500여명으로 구성된 봉화사과발전 협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 지도활동을 보다 내실화하며 '96년경우 50여명이 이태리 티롤지방에서 연수도 하였다.

「봉화고추」경우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여 적정품종의 안배, 이중 터널재배 및 「관수 + 액비 + 키토산 + 목초액」 사용체계를 확립하여 맑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고추의 우수특성 홍보를 위해 홍보관, 스티카, 고추모형도, 우편제, 품평회, 세미나의 개최와 봉화고추명인으로 「봉화고추 4H왕」, 「고추장사」등을 선발하여 홍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고랭지 봉화딸기」는 당도와 색 및 맛의 우수성을 앞세워 무병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농가 재배면적을 2,000년까지 100ha 규모로 확대하여 특화시켜 나가며 「봉화복수박」 역시 전국 주산단지로서 발전시켜 깎아먹는 복수박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끝으로 「봉화한약우」는 현재 사육규모 1,200두에서 2000년까지 5,000두로 확대하여 개방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봉화한약우의 특성으로는 10% 증체, 불포화 지방산이 76%(일반 51%)로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항생제 미사용, 올레인산의 다량 포함으로 맛의 우수성 그리고 누린내 없고 조리효율이 높은 점 등으로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으며 전국 9개의 직판매점을 확보하였다.

셋째, 연중 출하 주요 특산작목의 본격적인 육성이다.

특산작목의 안배생산 부진으로 연간 지속적 공급이 미흡하고 작목별 생산량의 불균형으로 파잉 및 부족의 악순환이 빈번한 것이 농업분야의 현실이다. 그래서 연중 출하 특산작목으로는 기존 특산작목인 딸기 복수박 한약우 등 9개 품목과 산채, 양채류, 와사비, 화훼류 등 31개 품목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봉화군의 농업상지대를 남부중간지역(봉화읍, 봉성, 상운, 물야), 준고냉지 남부지역(재산, 명호), 준고냉지 산간지역(법전, 춘양), 고랭지역(소천, 석포)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산작목을 결정하여 계획적인 생산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위하여 작목별 핵심과제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고 품목별 작목연구회를 조직 운영하며 생산물의 출하, 유통기능의 강화와 특산물별 홍보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넷째, 농가시범 및 시험사업으로 신기술 개발 보급이다.

관내 선진 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실증하는 시범 및 시험 사업으로는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시범,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 양계특수란 생산시범, 난 집단재배, 산채류 시범재배, 백합시범단지, 고랭지 씨감자 생산, 개량 산머루과원 조성, 약초생산 가공시범, 산지 인삼재배포, 채소과종 기계화시범, 시설채소 작부체계모델 보급시범, 농산가공 부산물 가축사료화시범, 향약초 재배기술 개발시범, 자생화 생산시범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범 및 시험사업을 전개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 확대하는 등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다섯째, 농업인 상담에 전산이용 극대화를 기하고자 한다.

농업기술정보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으로 농가경영실태(AGR), 적지적작목추천(BH), 예상소득 분석(FD) 및 PC통신을 이용하여 한자리 종합상담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것 중에 적지적작목 추천 프로그램은 전국에 유일하게 완성된 프로그램으로서 예를 들면 한 농민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에 무슨 작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 지도소의 경영상담실에 와서 컴퓨터로 기 입력된 스스로 본인의 경영상황을 알아보고 전답의 이화학적 성질에 따른 적정작목을 선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농업인의 상담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천

하고 있다.

끝으로, 농촌생활의 과학화로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간다.

기술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등 각종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혀가고 있다.

또한 농촌여성의 능력 향상책으로 알뜰한 농가주부 육성을 위해 부업과 연계한 자격증 취득교육도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촌가꾸기를 위해 마을 공동휴식공간 조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비닐하우스 휴식실, 태양열 온수기 설치, 전원농가 조성, 노인 생활지도마을을 확대 육성시켜 나가고 있다.

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솜씨 자랑대회, 공예품 전시회, 봉화전래 주방가사, 고전민요 발굴 발표회 개최, 우리먹거리연구회 운영,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등도 실시하고 봉화배구단을 더욱 활성화 시켜가고 있다.

IV. 봉화군의 발전농업 전략

WTO 체제하에 우리농업인과 농촌에 어려움이 많다고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농업 농촌에 먼동이 새로 트고, 새벽이 오고, 새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첨단기술 농업을 만들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쾌적하고 넉넉한 "농촌봉화"」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봉화특화농업의 완전한 정착이다.

국제 및 국내 경쟁력의 우위에 접할 수 있는 사과, 한약우, 복수박, 양계, 신선채소 등 5대작목의 확대 보급촉진과 질을 한층 높혀 수출작목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M9 대목을 이용한 저수고초밀식 재배는 현행 사과 재배면적 1,600ha는 1999년까지 전면 개원하여 세계 최고의 봉화사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또 경쟁력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화훼, 산채류, 양채

류, 버섯 등 11개 작목은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수출과 내수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첨단 전문기술농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앞으로의 농업은 품질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또 생산을 높여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노지재배로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수막재배, 자동화하우스 재배, 수경재배, 유리온실 재배, 자동화축사 등 첨단시설농업으로 기계화와 자동화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봉성면 금봉리에 20천평 규모의 농업개발센터를 '98년까지 조성하여 봉화농업개발에 혁신을 기해 나갈 것이다.

셋째 작목별 농업인의 조직이 보다 활성화되고 협동농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별영농이 아닌 협업영농을 위해서는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작목을 중심으로 모여 작목반을 만들고 교육과 선진지 견학은 물론 투자도 같이 하며, 대정부 지원 교섭도 단체로 해야만 되고, 앞으로 모든 사업은 작목조직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협동협력은 개개인보다 크나 큰 파체를 이룩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가져온 것은 오늘 어제의 사례가 아니다.

넷째 우리지역에 맞는 고냉지 수출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세계적인 거대한 물결, 그에 따른 세계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 네델란드, 이스라엘 등 선진농업국의 농민들과 경쟁해야만 살 수 있다.

국제경쟁에서 지면 살아 남을 수 없다. 경쟁이 어려우나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기후풍토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이 옆에 있다. 또 유럽과 북

미지역에도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인장이 세계수출의 80%를 점하듯 질 높고 규격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수출할 수가 있다. 특히 우리지역은 “고냉지 양채류, 버섯, 사과, 양계·양돈, 특용작물” 등은 얼마든지 수출할 수가 있다.

다섯째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가공, 저장, 유통에 힘을 배가해야 한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잘 가공하고 저장을 하여 단경기에 출하하는 등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를 '97년부터 봉성지역에 신축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유통을 개선하여 중간마진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늘날의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여섯째 저공해·무공해 농업을 지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농업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되찾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농업자체가 안전한 농업으로 발전하는 길 밖에 없다.

이것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것이 “유기농업”이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시비, 방제방법, 천적이용, 윤작방식 개선, 내병성 품종까지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맑은 농업, 깨끗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현행 키토산연구회, 목초액연구회, EM발견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더욱 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